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마 6:9-13)

Deliver us from Temptation and Evil (Matt. 6:9-13)

악은 헬라어로 '루포네루'라고 하며 악한 자, 악한 영, 사탄 혹은 마귀를 말하며 그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vil in Greek 'ruponeru', refers to the wicked, the evil spirit or man, Satan, or devil, while the works that the evil one is doing is the temptation.

1. 악한 자

1. The Evil One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천사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범죄한 천사들, 계명성 등으로 묘사합니다(유 1:6, 벰후 2:4, 사 14:12).

As to the existence of the evil spirits, the Bible describes angels who had left the places where they had been positioned, the angels that committed sins were those who wanted to be like God with a conceited mind, and the Morning Star (Jude 1:6, 2 Pet 2:4, Is. 14:12).

이 악한 마귀의 무리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옥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영원한 사망에 동참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se evil groups keep the hell and exist until the last judgment. And they are to be destroyed in the eternal death at the times of the last judgment. And until that time, the Apostle Peter says,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할 자들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However, you must not be afraid of the evil. The devil is not the object of being afraid but the object to fight against. 'Fighting against', means that we never let our guard down but constantly strongly oppose it. In any way we must firmly defeat it.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요 일 5:18).

"Anyone born of God is kept safe, and the evil one cannot harm him" (1 John 5:18).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면 안 될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통하여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why the evil Satan does not disturb us is because Jesus Christ guards us. And if we are afraid of Satan, we may give a chance to Satan to seize through our fear.

2. 시험

2. Temptation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좋은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만 인내하며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Satan tempts us and leads us into temptation. This is also a good test that God gives us for our benefit. The Bible says that though this test might be painful for us, God gives beautiful and good things which cannot compare with the present suffering to those who endure the pain and gain a victory.

그런데 주기도에 나오는 시험은 원수 마귀가 주는 악한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매료됩니다.

However, the word 'temptation' in the Lord's Prayer is the evil test that is given by the demon. The demon's test is the temptation that leads us into destruction. This temptation works to satisfy the sinful nature of humans. That's why people are fascinated by the demon's temptation.

마귀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 누구라도 유혹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요셉,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Regardless of who you are, Satan tempts every one. Since a number of prophets, Job, Joseph who were righteous people from the east, chief priests, and even Jesus were all tempted by the Sata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atan will also tempt you and me. So, we must be aware at all times and pray, asleep or awake.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혜롭고 힘이 세지만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악한 영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However, Satan has limits in temptation. Satan is cunning and powerful but not omniscient. Accordingly, if we rely on and follow Jesus Christ who is omniscient, we can fully defend the evil spirit.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stand up under it (1 Cor. 10:13).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멸망하기까지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God never allows us to be tempted by Satan in a way that will lead us to collapse. Therefore, if you endure with your belief to the end in any temptation that comes, God will be with us together in wonderful grace and bless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매일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악한 시험을 이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By wakening and praying every day and being victorious over temptation,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fully enjoy God's wonderful grace and blessing.

사랑과 섬김, 나눔과 감동의 축제 2012 사랑의 바자

9월 20일(목) ~ 21일(금), 오전 10시 ~ 오후 7시

사랑과 섬김, 나눔과 감동의 축제, 2012 사랑의 바자(위원장: 김광신 장로)가 20일(목)~21일(금)에 열린다.

이번 바자는 생명의 우물 파기, 미자립교회 돕기, 이웃 돕기, 탈북난민 돕기, 아가페 타운 건립을 목표로 하며 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랑나눔 A+ 1% 나눔운동’과 ‘사랑나눔 A+10% 절제운동’에 따른 약정현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온 성도들은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각 가정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소장품들을 기증하여 주시기 바란다.

바자 수익금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소외된 장애인과 노인들)과 탈북자 등을 돕는 일에 사용할 것이

며 또한 계속 되는 아가페 타운 건립을 위해 사용한다. 교구별 위치 배정 추첨은 오늘 3부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다. 서울교회 앞마당과 1층 로비, 7층과 8층 식당 그리고 한티공원에서 열리는 바자는 주로 성도들의 기증품 위주로 판매되며 추석 선물을 위하여 농수산 특산품을 준비할 예정이므로 성도들은 이번 바자 기간 동안 추석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더욱 좋다.

이번 바자를 위해 교구에서는 미리 준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번 바자를 위해 교구에서는 미리 준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3]

(문 61) 술 취하는 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 신 14:26에서는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돈 주고 사라고 했고 출 29:40에서는 제단에 포도주를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 29:40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금했으며 잠 20:1, 23:29-31에서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므로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술을 남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고(창 9:20-21) 롯의 딸들은 아비에게 술을 먹여 동침함으로써 모압과 암몬 자손의 악의 씨를 낳았고(창 19:30-38) 이사야 선지자는 술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을 책망했으며(사 28:1-8) 잠언 20장과 23장은 술 취한 자를 어리석은 자나 사귀지도 말라 했습니다.

시 60:3, 75:8, 렘 13:12-14, 25:15-18은 술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며 심판을 불러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계 14:10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마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레 10:8-11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죽음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분향하다가 벌을 받아 죽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속되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술을 금한 것입니다.(레 10:10)

신약에 와서 모든 믿는 이들을 제사장으로 보는 만민 제사론(벧전 2:9)을 믿게 될 경우 성도들이 술 취하여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라'(히 12:1) 했으니 술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술을 만드셨고 최후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술을 마셨으며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에게 약으로 기름(포도주)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약 5:14) 그렇다면 술은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술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자체가 죄라면 주사할 때 알코올을 바르면 죄를 흡수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롬 14:21)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롬 14:22)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9월22일(토),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우리교회 주관으로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을 거행한다.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이번 진중세례식에 약 500여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을 예정이며 우리교회 박노철 담임목사와 장로, 비전2020위원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베푼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복음의 정병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교회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한다.

제 9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최

제 9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9월 17일(월) 오후 2시 개최하여 21일(금)까지 소망교회당에서 모인다

우리 교회는 오정수, 김광신 장로가 총대로 참석한다.

영동시찰회

서울강남노회 영동시찰회가 9월25일(화) 오전11시 우리교회당에서 열린다.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3독 : 윤운 권사(3교구) 김수정 집사(3교구) 박명석 권사(12교구)
- 2독 : 김경숙 집사(9교구)
- 1독 : 최차순 집사(4교구) 이민자 권사(5교구) 임윤자 권사(8교구) 이남성 집사(9교구) 육순자 권사(11교구) 장양일 집사(16교구)



제1권사회는 지난 13일(목)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즙을 만들었다



제45회 메시아연주회 단원 모집

- 주 최 : 메시아연주회
- 일 시 : 2012년 12월 1일(토) .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연습장소 : 소망교회 선교관
- 연습일정 : 9월 24일(월)부터
매주 월요일(19:00~ 21:00)
토요일(18:30~20:30)
9/29(토) 와 10/1(월)은 제외
총 18회의 연습중 80% 이상 출석하여야 참여 가능
- 지휘자 : 박창훈(장신대 교수)
- * 찬양대원의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 사랑의 바지를 준비하며

나눔이 있는 고된, 그러나 감동의 축제

김광신 장로 (2012바자 준비위원장)



서울교회는 해마다 가을에 사랑을 노래하고 나눔을 실천하여 고되고 힘들지만 감동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그 내용을 넓혀서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우물과기를 위하여 바자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바자는 힘들고 고되고 땀나는 노동이고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자기포기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아직도 모든 면에서 행복을 잃고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헤메이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만 주어도 용기가 솟아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구제가 무슨 약효가 있는가 반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이 모자라면 두 번 하고, 두 번이 부족하면 세 번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성들인 바자에 예수님의 심장과 사랑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도움으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 나눔의 축제를 살려야 합니다. 너만 참여하는 바자에서 내가 꼭 포함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미자립 교회의 아픔에 동참하고 탈북난민의 고통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는 뜻은 유별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로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행하는 바자가 다른 교회에도 그 영향력을 끼쳐서 더 넓은 이웃에 초점을 맞추는 바자가 유행하기를 소망합니다.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바자에 우리의 시간, 몸, 정성,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운동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민에게 전도 - 일본 선교보고

일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 씀으로 귀한 수련회와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오미야교회는 성전건축문제와 개척교회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야교회후임자 청빙문제도 준비를 하여야 되고, 오미야교회의 성도님들의 고령화로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국가가 20년간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성도님들의 경제도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어 성전건축문제는 보상범위 한도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히키다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적으로는 일본도교팀과 서울교회의 영적물적의 후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영국올림픽 한일 축구경기 때에 한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프랭카드를 들고나온 문제와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로 일본의 모든 선교사들과 제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선교위원회와 일본선교도교팀과 권소희

집사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일본에서 허창범, 현미순, 성강, 평강 올림

< 기도 제목 >

1. 저희 가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 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히키다목사님이 성령충만하여 담대히 성전건축문제와 교회개척문제와 후임자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오미야교회 14명의 장로님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자기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오미야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 하지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저와 오미야교회와 계약이 2013년3월에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달은 히키다 목사님의 한달간 휴가로 교회 모든 업무와 설교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몹시 바빴습니다. 286명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여름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오봉이라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오봉명절에 앞서 여름축제를 하는데 그것은 각 지역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을 배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2-4일 까지 군마경의 국민우라묘기에서의 여름성경학교는 오미야마츠리(축제) 때문에 아이들이 25명이나 적게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아이들40명과 교사19명이 참여하여 여름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곳은 사이다마경의 오미야에서 기차와 버스를 타고 2시간 40분을 가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올해의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마태복음4장1-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천국시민양성 - 장년부 성경공부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유선의 집사(1교구)

1부 예배 후 본당에서 김철홍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년부 성경공부 2학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만 성경지식이 부족한 제게는 들을 때 마다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고, 명절에도 변함없고, 휴가철에도 꼭 치는 참여 자세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바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세세히 머리에 담아본 적이 없어서 연신 새롭네다가, 갈라디아서를 22주에 나눠들으니 한 번씩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쳤던 그 동안의 제 방법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2학기 첫 시간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모범"이라는 제목에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

니다.

말씀 뿐 아니라 장년부를 섬기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봉사 자세도 배우게 되고, 성경공부 끝난 후 8층 만나 홀에 올라가 각 반별로 모이는 자리에서의 친교도 내겐 참 많은 것을 깨우쳐주는 시간입니다. 항상 시간이 아까워 찬양대 연습 중 있는 식사시간에도 교회 식당 이용을 안했 던 내가 8층에 올라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기다리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메마른 내 정서에 젊은 집사님들의 자녀이야기, 학교이야기, 서로 걱정해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 마음이 환하게 열려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원망과 피해의식에 휩싸여서, 또 그게 드러나는 게 싫어서 친교보다는 혼자 시간을 갖고, 듣기보다 읽는 것을 즐기다보니 언제부턴가 표정까지도 변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난 가장이라 남들과 같을 순

없지 않느냐 자위하며 항상 하나님께 이해해 달라고 떼만 썼던 미숙한 신앙인이었는데...

혼자의 시간에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들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며 말씀하여 주소서. 들겠나이다."라는 성경공부가를 되뇌어 볼 때면 어찌이리 잘 지었는지 새삼 감탄스럽습니다.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필그림중창단 (부장:김규태 집사, 리더: 이주현 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주님 한 분만으로", "성도여 다 함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 등 네 곡을 찬양하며, 키보드에 백소현 성도, 기타에 박민서 성도, 베이스에 신원열 성도, 드럼에 김성민 성도가 함께 연주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8일(화) 프랑스개혁신교회총회대표단 방한 환영간담회에 참가한다. 22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움을 소집하고 교회예배 설교를 한다.

■ 이갑진 장로는 9.15(토)~20(목) 세계기독교인회 회장 교대식 및 2014 세계기독교인대회 협의 차 미국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 출장

■ 특녀: 12교구 이성민 성도 김소영 성도(김광룡 집사 이정임 집사 처녀)가정

■ 주간식당봉사: 제1권사회(9.16) 제2권사회(9.23)

■ 금주의 식사: 교회 제공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기도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구절을 암송하여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는 만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걸어갈 때나 훈련 받을 때나 쉴 때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크리스천으로서 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은송 성도 (대학부)

타인을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겠습니다. 저의 언사나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타에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 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제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이 제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지기를 소원합니다.

2012년 8월 18일
우리 서울교회 비전2020운동을 통하여
파송 받아 해병대에 입대한
박은송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길 원합니다. 힘든 일을 피하거나 요령을 피우지 않고 먼저 희생하여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악인을 가려내시고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저 스스로 감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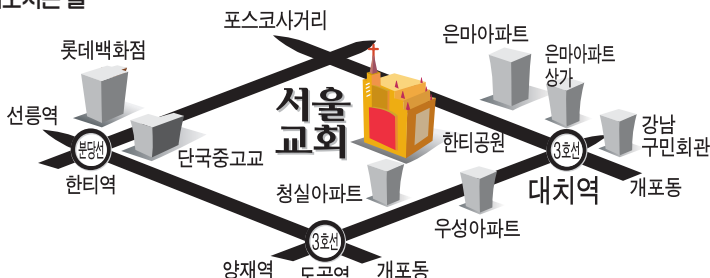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는 사랑의 바자를 통해서 교회가 먼저 기쁨으로 하나 되며 이웃에게는 사랑의 빛을 발하도록
2. 9월 22일 토요일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을 통해서 젊은 군인들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며 비전 2020 운동이 지속적으로 성취되도록
3. 병사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하늘의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앞에 나올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